

## 진짜사장 재벌총수 정의선이 결단하라

6월 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 자본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생산, 경비, 식당,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정했습니다. 금속노조가 4월 29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을 접수한 이후 50여일 동안 3차례 심문회의라는 유례없는 시간끌기식 행정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차가 실제 사용자라는 우리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도 말입니다. 노동자들은 울산지노위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으로 울산지노위도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 자본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로펌을 동원했습니다. 온갖 해괴한 논리로 극구 본인들이 사용자가 아님을 증명하려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한 달뒤에 공개될 지노위의 판정문을 경계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직무·직군에 따라 사용자성을 각기 판단하고, 사용자가 교섭해야할 의무가 있는 의제를 대폭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차 자본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할 것이 예상됩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하기 싫어서 대형로펌들에게 돈을 퍼다주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야기 9



## 자회사는 껍데기다 상식이 통하는 현장을 만들자

자회사라는 이름이 걸맞기 위해서는 독립된 경영과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현대차그룹의 자회사들은 전국 각지에 있던 업체를 모아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의 당사자로 머물 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공장 부지, 건물 제반 사항이 모회사의 것이니 시설투자, 설비투자, 안전보건 등 핵심적인 운영은 모회사의 계획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는 '자회사' 이전에 통합된 업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생산전문사'를 거치면서 이런 형태와 구조를 경험해 왔다. 허우대 좋게 자회사라는 이름만 바뀌고 덩치만 커졌을 뿐이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고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는 모회사이다. 이런 구조의 자회사는 회사라기보다 중간 통로에 가깝다. 자회사는 권한은 없지만 책임은 떠안는 위치이다.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계약과 꼼수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실이다.

울산지노위, 3차례 심문회의 끝에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충남지노위, 7월 2일 현대제철 사용자성 판단 예정  
현대제철비정규직 2천여명 6월 24일 양재동 집결  
원청 자본은 시간끌기 그만하고 즉시 교섭에 임해야

원청 자본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화에 나서면 될 일이였습니다. 노동부가 쓸데없는 행정지침, 매뉴얼 따위 만들지 않았으면 될 일이였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의 범위를 잘게 쪼개서 짜여진 틀에 맞추고,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서로 찢어놓아도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교섭 요구안, 그리고 원청의 사용자성의 범위를 제한시키려는 자본과 정부, 사법부, 노동위원회, 그리고 자본에 부역하는 로펌들을 투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사건 또한 7월 2일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현대제철비정규직 당진,순천,내화조업정비 지회 조합원 동지 2천여명은 6월 24일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에 집결하여 정의선 회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현대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원청교섭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유지하려는 재벌총수의 탐욕스럽고 비열한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동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 자본의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심판, 재심, 소송, 행정절차 따위에 우리의 권리를 짓밟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현장의 생산이 멈추고 자본의 이윤이 끊긴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문제가 발생하면 구조의 모순은 더 분명해진다. 자회사는 시설 하나 바꾸려 해도 세입자처럼 집주인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회사는 "결정권이 없다"고 말하고, 모회사는 "당신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다. 결국 우리는 원청사의 승인을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모회사의 투자계획을 기다려야 한다. 불편함과 불이익은 모두 현장 노동자의 몫이다.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현장의 답은 명확하다.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 자가 진짜 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사장은 현대모비스이고, 현대모비스를 통제하는 것은 재벌총수 정의선 회장이다.

자회사 본질을 부정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불법파견 회피와 재벌승계를 수단으로 만든 자회사라면 고용관계든, 노사관계든 정상적일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시발점이다. 정의선 회장은 더 늦기 전에, 더 큰 분쟁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원청교섭은 그 시작일 뿐이다.

김상일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모비스서산지회장



진짜사장 재벌총수  
정의선이 결단하라

#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2026.6.24(수) 14시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순천) 현대제철내화조업정비지회